

AI '지능형 고용 내비게이션' 선포 초개인화 구직 서비스에 130억 투입

한국고용정보원 개원 20주년

고용24, 개인회원 1000만명 돌파
직무 온톨로지 특허 등록 완료
AI 전략팀 신설·노동시장 TF 가동
이창수 원장 "지난 20년 디딤돌 삼아
AI·데이터로 국민 적성·꿈 이룰 것"

국가 고용 인프라의 심장 역할을 해 온 한국고용정보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세운 '지능형 고용 내비게이션' 시대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3일 충북 음성 본원에서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주요 인사와 임직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0주년 기념식' 및 미래 전략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 고용 혁신 20년, '데이터'로 증명한 국가대표 플랫폼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20년간 흠어져 있던 국가 고용 서비스를 하나로 결합한 차세대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고용24'는 최근 개인 회원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기술적 성과도 독보적이다. 21.5억 건의 방대한 고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이직·전직 경로를 안내하는 '직무 온톨로지(Job Ontology)' 특허 등록을 완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이 23일 오전 충북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열린 '개원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고용정보원

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 대한민국 10대 AI 선도기관'에 선정되는 등 공공 서비스의 기술적 우위를 증명했다. 또,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사회공헌대상 ESG 부문'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서고 있다.

◆ 향후 20년 비전, AI 기반 '초개인화' 고용 서비스 가동

이날 선포된 미래 전략의 핵심은 'AI 기반의 지능형 고용 내비게이션 혁신'이다. 구직자의 역량과 기업의 수요를 AI로 정밀하게 매칭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길잡이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고용정보원은 올해 AI 전략팀을 신설하고 노동시장 분석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등 약 130억원 예산을 관련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초개인화된 구직자 맞춤형

생애경력관리 서비스인 '잡케어+(JobCare+)'를 고도화하고, 기업 인재채용 및 착지원시스템 '펌케어(FirmCare)' 확대 등 서비스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한민국 고용 정책의 중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준 임직원과 국민의 변함없는 신뢰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지난 20년의 눈부신 성취를 디딤돌 삼아, 다가올 20년은 AI와 데이터 기술로 국민 개개인의 적성과 꿈을 이어주는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 고용 표준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3.9GW 목표 서부발전, 전담조직·인력 확대

재생에너지사업단 '1단 2실 5개 부서'
본사 전담인력 80명... 30명 증원
'재생에너지건설부' 신설, 개편 핵심

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대거 보강했다.

서부발전은 기존 '1단 1실 4개 부서'였던 재생에너지사업단을 '1단 2실 5개 부서'로 확대하고, 본사 전담 인력을 기존 50명에서 80명으로 30명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본사와 사업소를 합친 전체 재생에너지 사업 인력은 총 161명 체제로 가동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생에너지건설부'의 신설이다. 그동안 건설 인력이 신규 LNG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업무를 병행해왔던 구조에서 탈피, 재생에너지 전담 건설 부서를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발전소의 적기 준공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설비 안전 전담 인력도 보강해 건설 및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풍력발전 분야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 풍력사업부를 '풍력사업실'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육상풍력담당' 부서를 신설했다. 이는 사업 특성이 판이한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입지별·설비별 특성에 최적화된 개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본사.

서부발전은 이번에 증원된 인력을 사업개발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전 과정에 배치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규모를 키우는 것을 넘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3.9기가와트(GW)까지 늘리기 위해 총력을 쏟을 것"이라며 "서부발전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지난해 9월 '햇빛원 태양광(60MW)' 준공과 12월 '군위 풍백 풍력(75MW)' 상업운전 개시 등 재생에너지 사업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이 순차적으로 폐지되는 태안권역에는 1.4GW 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포함해 총 2.2GW 규모의 대규모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환경공-IBK기업은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중소기업 감축실적 확보 도와

한국환경공단과 IBK기업은행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연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이에 양 기관은 민간금융연계를 통한 사업 실행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보 공유 및 사업 추진 가능성 공동 검토 ▲정부지원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비금융 지원 ▲국제감축사업, 글로벌 탄소시장 관련 제도·정책동향 정보 교류 등에서 협력한다.

특히 공단은 실행 가능성 높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또 정보 제공, 금융 조달까지 연계해 감축분 확보와 기업의 국제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투자지원 기업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자 공모 차수와 접수기간을 확대 개편했다. 1차 지원 신청은 지난 3월 초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되 바 있다. 2차 공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UPA, 中·日과 친환경에너지 공급망 협력

울산항, '친환경연료' 공급거점 육성

울산항만공사(UPA)가 울산항을 '친환경연료'의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해운분야의 탈탄소 흐름에 발맞춘 행보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일본 업체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및 '급유 수요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 진행됐다.

중국에서는 주요 그린메탄을 생산업체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울산항 내 친환경 에너지 저장 및 급유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생산·저장·공급으로 이어지는 그린메탄을 전주기 공급망 구축이 가능해졌다. 또 향후 실질적인 친환경 선박연료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현지 주요 항만 국영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망도 공고히 했다. 우선 동북 3성의 해상 관문 역할을 하는 랴오닝 항만그룹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에너지의 울산항 유입을 위한 공급망 구축을 협의했다.

또 세계 1위 상해항을 운영하는 중국 최대 항만기업인 SIPG(S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와는, 양국 정부의 급유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중 주요 항만 간 협력을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

급과 급유 수요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등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제 해운시장은 화석연료에서 액화 천연가스(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로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다. 이에 양측은 항만 간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미래 항만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본에서는 종합상사인 이토추(Itoc hu)를 대상으로 그린메탄을 저장 및 급유 수요 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를 통해 메탄올 물량을 추가로 유치하고, 울산항을 동북아 친환경 연료 저장 및 공급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울산항은 지난 2023년 7월 세계 최초 그린메탄을 급유 성공 이후 현재까지 총 17회의 메탄올 급유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자동차운반선을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 급유와 하역을 동시에 성공하며 액화천연가스 급유 상업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또 올해 2분기 중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급유 실증사업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울산항은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암모니아에 이르는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서 위상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에는 한·중·일 동북아 항만 국장 회의가 울산에서 예정돼 있다. 공사는 울산항의 국제 친환경 항만 협력 관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21일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부두(한국국제터미널)에서 신규서비스 기항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 佛 선사 원양항로 유치

주 1회 8000TEU급 선박 광양항 기항
년 10만TEU 신규 물동량 창출 전망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신규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 유치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신규 서비스는 프랑스 국적의 CMA CGM 선사의 'PEARL AS1 팬들럼 서비스'다. 아시아와 북미 대륙을 시계추처럼 오가는 장거리 핵심 노선으로, 8000TEU(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 기준)급 선박이 매주 1회 광양항에 기항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신규 서비스의 라스칼라호(LASCALA) 첫 기항에 맞춰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CMA CGM 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한국국제터미널 대표, 항만공사 임직원 등이 참석해 감사인사와 기념패 등을 선정·선원들에게 전달했다.

공사는 그간 광양항 이용 화주들의 불편 사항인 정기선 항차 수 및 원양서비스 부족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CMA CGM 아태지사(싱가포르)를 대상

으로 타깃 마케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정기선 서비스 유치를 통해 항만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번 서비스 유치를 통해 연간 약 10만TEU의 신규 물동량이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향후 광양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감이 곳곳에서 살아나고 있다.

이번 신규 서비스의 기착지 상세 정보는 ▲전남 광양 ▲(중국)청도, 상해, 닝보, 쑤저우 ▲(싱가포르)싱가포르 ▲(인도)나비세바, 문드라 ▲(파키스탄)카라치 ▲(스리랑카)콜롬보 ▲(싱가포르)싱가포르 ▲(베트남)하이퐁 ▲(중국)샤먼, 난샤, 안티안 ▲(미국)로스앤젤레스 ▲전남 광양 순이다.

최관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세계적인 해운기업 CMA CGM이 핵심 거점으로 광양항을 선택했다는 것은, 광양항이 더 이상 지역의 항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